



## 지/면/안/내

- 2 '9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  
입학관리과에서는 지난 8일 '9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 전형일정과 모집정원 및 전형방법 등을 제시했다.
- 3 OECD가입의 의미  
29번째 회원국으로 추대받아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국의 OECD가입은 우리에게 이점도 있지만 오히려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어 통렬한 양면성을 띠고 있다. 이에 한국의 OECD가입의 진정한 의미와 가입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 4 한국의 민주주의의 상태  
한국의 민주주의는 연정부와 일부정치인들의 권위주의적 권력행사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체제의 관심속에서 꾸준히 발전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5 영평의 얼굴들  
77회 전국체전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획득한 우리대학 정구, 배슬링, 씨름, 역도 선수들을 각각 만나 보았다.
- 6 호남의 금석 ⑤  
잊혀진 약령시장과 서천교  
조선 후기 전주의 명물이었던 약재시장 기록과 전주천에 돌다리 형태로 건설된 서천교 창건기록을 비문내용을 통해 알아본다.
- 7 교수협의회 임시총회 열려  
지난 16일 교수연구동 8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교수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복수전공제 도입문제, 기독교 신앙강화에 따른 부직공, 비민주적 대학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되었다.
- 8 문화와 에로스 이야기 ①  
동양과 서양의 '에로스'를 비교 문화적 시각에서 살펴본다. 전규태 교수는 동양의 여러나라에서 남녀간의 사랑을 '성적인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동아리 시행세칙 '논란'

## 총동연 동아리 특수성 감안 자체 선거관리 주장 선관위 5차 선관위 모임서 시행세칙 재검토할 터

전체학생대표회의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앙선관위) 모임이 지난 18일 전 총대의원회 사무실에서 열렸으나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이날 모임에는 21명의 선관위 위원 중 11명이 참석해 과반수 참석으로 모임을 성사했으나 회의 도중 일부 위원이 빠진 나가 안전에 대한 걱정은 오늘 4시에 열리는 5차 선관위 모임으로 위임됐다.

인정으로는 총동연이, 단과대학 선관위 주체 선출 및 중앙선관위 집행과 간담회 97년 학생자치 기구장 선거를 위한 선거 시행세칙 최종 확정, 그리고 선거일정 확정 등 3가지였다.

먼저 선관위 실무위원장 선출에서는 영문원과 회창과 예체대 대 회장이 각각 추천을 받았으나 본인들의 반대로 인해 다음 선관위 모임에서 다시 선출하기로 했다.

두번째 선거시행세칙 최종 확정 안전에서는 선거비용 상향선 결정과 총동아리 연합회(회장:이승호·이하:총동연)의 피선거권 규정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그 중 선거비용 상향선 결정은 단과대학, 총동아리, 총대의원회와 중앙선관위 협정을 거둬왔으나 많은 위원들의 동의에 결정하지는 의견이 드러나 오늘 선관위 모임으로 위임됐다. 또한 총동연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총동연 측에서 지난 하반기 2차 전대회에서 "총동연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루자"는 입장을 비추어 따라 나온 것으로 이날 이승호 회장은 선관위 모임에 참석해서 "자신과 분과장 5인, 각 분과별 5인, 중앙선관위 2인으로 선관위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선거를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대은 선관위원장은 "오는 21일에 있을 선관위 모임에서 지난해 중앙선관위 시행세칙을 다시 재검토하는 등 많은 선관위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동아리 선거에 대한 논의에 대해 총동연 입장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일정 안전에서는 김대은 선관위원장이 가안을 내놓았으나 역시 5차 선관위 모임으로 위임됐다.

한편 이날 전 현 사대에 부회장은 또다른 안건으로 '선관위

원칙에 대한 논의'를 제출해 오늘 있을 선관위 모임에서 '총동연이 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되는데 선거는 문제집'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김대은 선관위원장은 총동연 피선거권 문제에 대해 "총동연이 특수성이므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없고 다른 연도의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여러 선거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전대회에서 결정된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선거를 치루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으며 "총동연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전대회의 자체를 존중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니 선관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같은 어느 특정 후보 지지 여부에 관한 우려 속에서 나온 것 같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 시행세칙을 최우선할 수는 없고 단지 선거가 전대회의 속에서 나온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공정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 또한 "총동연이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해 선거를 치룰 경우, 그 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승호 총동연위원장은 "동아리 선거의 특수성은 동호회와 다른데다 비민주적이고 비공정적인 점이 있다. 그래서 선거도 간접 선거를 치루는 것이다"고 말하며 "비민주적 지지기반 총대의원회에서도 총동연 선거에는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간섭하지 않았다. 또한 어느 학교를 불문하고 동아리인들을 제외하고 전대회의가 총동연의 선거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없다"며 "과외장이 동아리인 선거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총동아리인들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승호 회장은 또한 "총동연 선관위 중 중앙선관위 2명을 포함시키는 것은 전대회의의 위상을 인정할 것이다"고 말하며 "5차 선관위 모임에 통과됐고 함께 참석해 총동연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밝혔다. 또 "25일 있을 동아리 대표자 회의가 끝난 뒤 총동연이 총동연 입장을 밝혀달라"며 "대표자 회의에서 전체 동아리들이 원한다면 선거를 자체적으로 치루 내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시사했으며 선관위와 총동연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보도단신

#### 학생수련관 '산천분교'로 확정

우리대학 학생 수련관이 원주에 있는 산천분교로 확정되었다.

지난 9월 24일 원주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산천분교'대각 임종에서 대학, 개인, 회사등 18개 사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우리대학은 용화가 3억2천9백만 원을 제시해 최종 낙찰됐다.

원주군 용성면 대이리에 위치한 산천분교는 교실의 8동, 총 부지 5,098㎡규모로 실내에 총 300여명이 수용 가능하며 근자에 수목원,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다.

원래 시설관리과에서는 지난 18일 산천 분교에 대한 시설을 건반에 걸쳐 건담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건축, 보수공사에 들어가 내년 3월부터는 적극 활용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설관리과의 김준근 계장은 "내년 문을 여는 수련관은 신穎에 대비선, 학생회 등과 기타 연수로 활용된다"고 밝히며 "학생회에서 신청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재부)

### 캠퍼스 라이프

10월 15일 19.15 ~ 17일

#### 진정 사랑인 거리문

10월 15일 19.15 ~ 17일

천장은 하나! /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민주광장에서 '96 천장 사 람인 거리축제'가 있었다. (사진:글:사진부)

## 무란잡기

▲선거일이 다가왔다. 아직 선거출마자의 움직이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오는 10월말이나 11월초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에는 자격조건 문제든 후보자가 선거당일 박탈되기도 할지 또는 선관위의 파격적 선거시행으로 인해 선관위를 불신임하기도 했다. 이렇게 파격적 선거시행을 펼치는 총대의원회를 올해는 파간이 해체하여 실시하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총회의와 더불어 범민족대회 이후 열리게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불려진 선관위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가오는 시기는 없을 것이다.

▲이번 선거를 담당했던 총대의원회가 해체되고 난 후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학생 선거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했다. 그리고 지난 총대의원회에 의해 실시된 선관위 업무는 잘못된 편행이 많았다. 선거시행세칙을 등록 1시간 전에 비해 후보자가 박탈당하기도 하고 또는 공약권 너무 비싸

한내 문제 대두되는 등 선관위의 독단적 운영에 대해 많은 비판을 우리는 해 왔다. 다분스럽게도 학생총회에서 총대의원회를 해체하고 전대회에서 결정된 사항들로 구성된 선관위로 운영하자는 것은 선거를 보다 공정하게 하자는 취지가 결속되어 있다. 이미 전대회에서 선관위는 총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중앙위 3인, 단과대학별 17인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바 있다. 누가 선관위 구성 명단에 들었느냐는 전대회

의 결정을 따른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회칙에 의거한다면 아무런 허자가 없다.

그러나 남은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의 공정성에 있다. 기존 총대의원회와 같은 약속을 반복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이는 분명 예민한 못한 꼴이 될 것이다. 공정하게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감시와 비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선관위 스스로가 진정한 간부적 입장으로 선거

### 다시 시작하는 선관위 올해가 중요하다.

의 결정을 따른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회칙에 의거한다면 아무런 허자가 없다.

그러나 남은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의 공정성에 있다. 기존 총대의원회와 같은 약속을 반복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이는 분명 예민한 못한 꼴이 될 것이다. 공정하게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감시와 비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선관위 스스로가 진정한 간부적 입장으로 선거

은 선거를 운영해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학생총회에서 전대 대외에 많은 권한을 부여한것은 공정하게 선거를 치러달라는 방법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 위원들은 선관위를 자기 편의 후보를 위한 일로 악용해서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 경우 선관위 전체에 대한 불신은 인간에 총대의원회와 한층 차이가 없고 "다 똑같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총학생회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 "분부적 입장으로 하겠다"는 말이 거짓이 아닐까 비관해서 이번 선관위는 공정하고 책임있게 선거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 기존의 총대의원 회의의 답을 이어간다면 '역시 개새는 개편이다'라는 학생들의 눈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김두원기자)

## 수습기자 모집

# 미래에 도전하는 새내기를 찾습니다

## 나만의 '전공 선택'

한정된 커리큘럼 안에서 나만의 개성을 찾을 수 없다!!  
성적표면 기재되지 않지만 인생 이력서엔 커다란 느낌표가 남을 생활들.  
조금은 바쁜, 조금은 힘든 일상에서 숨겨졌던 진정한 '나'를 찾아보자  
바로 이곳 대학신문사에서...



## '뿌리'를 이어가는 새내기 모집

### 제 28기 수습기자

- ▶ 모집대상 : 96학번 00명
- ▶ 모집부문 : 취재, 사진, 만화 (각)
- ▶ 모집일정 : 11월 12일 오후 5시까지
- ▶ 전형방법 : 면접
- ▶ 원서접수 및 전형장소 : 전주대 신문사 편집국 (학생회관 3층 진리관 앞)

글썩서 보다는 열정있는 96학번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학생회관 3층으로 지금 발걸음을 돌려보세요.



### 더 큰 귀를 가지면 된다

지금 우리 대학에는 신고유체의 시행과 같이 대학의 장래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현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적지않은 교수들이 당혹하거나 불안해 한다. 이 것이 종종 돌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6일(수요일)에 열렸던 교수협의회 임시총회는 그 직접적 원인이 되어서 많은 교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학의 현안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기적절할 일이라고 보는 게 좋을 듯하다.

교수협의회에서 논의된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핵심은 대학의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비민주적이고 고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의 내용 또한 우리 대학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외형에만 신경을 쓰는 듯한 전시정책의 시책이 종종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학교 정책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외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의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몇 년동안 잠잠하다 열린 교수협의회에 그렇게 많은 교수들이 참여했다는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대학당국이 그러한 교수들의 목소리를 불발단체의 불평이나 불만으로 치부해버리지 말고 절절한 자세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고칠 것을 고쳐달라는 것이다. 비록 교수협의회가 아직은 합법으로 인정받지 못한 단계이지만 하지만 10여명의 교수들이 모여서 한 소리를 들이라면 그만큼 절실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자세는 보기에 옳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도 대학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교수들이기에 교수들의 목소리가 활발하게 터져나오고 또 그러한 소리가 대학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고 적극 반영할 때 대학은 활성화되고 발전될 것이다. 대학발전은 있고 있는 보지자들도 사람이 깨닫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되거나 오히려받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잘못은 고치면 되는 것이다. 고쳐서 전과위부의 계기를 만들면 된다. 그런 까닭에 회교당국은 더 큰 귀를 가지고 교수들의 소리를 다 들어보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기가 바란다.

### 우리의 주장

###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야기 하나

'연구 안하는 교수가 많다'는 이야기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의 설문 이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4년제 134개 대학에 요구해 100개 대학의 '93~95년 교수연구실적을 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원평가 등에 따라 분석한 결과, 교수 1인당 연간 논문 발표가 1편도 안되는 대학이 22개 대학이나 되는 한편 논문 발표가 없는 교수가 갈수록 늘어나는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더구나 교수 1인당 연간 논문 발표가 1편도 안되는 22개 대학 가운데 우리 전주대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물론 연구논문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 논문이라는 게 발표한 숫자나 양(量)보다는 내용이나 질(質)을 따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발표한 논문수가 적다고 해서 결정을 할 일은 아니다. 더구나 대학교수수가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와 학생지도도 같이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대학교가 주인으로 강의를 하고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발표한 논문수가 적은 게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대학교수라면 적어도 1년은 여러 편 정도의 논문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 그러나 대학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교수들이 진실하고 진지하게 연구하고 글이 아무리 읽힐수록 바쁘다 하더라도 교수 연구소를 소유하고 있다는 인연이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가르치는 곳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연구하는 교수라고 평가받을 때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가 때가 올 정도로 대학의 행태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듣는 상황에서 우리 대학이 사는 길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고, 대학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교수들이 진실하고 진지하게 연구하고 글이 아무리 읽힐수록 바쁘다 하더라도 교수 연구소를 소유하고 있다는 인연이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가르치는 곳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연구하는 교수라고 평가받을 때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안하는 교수가 많다'는 이야기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의 설문 이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4년제 134개 대학에 요구해 100개 대학의 '93~95년 교수연구실적을 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원평가 등에 따라 분석한 결과, 교수 1인당 연간 논문 발표가 1편도 안되는 대학이 22개 대학이나 되는 한편 논문 발표가 없는 교수가 갈수록 늘어나는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더구나 교수 1인당 연간 논문 발표가 1편도 안되는 22개 대학 가운데 우리 전주대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물론 연구논문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 논문이라는 게 발표한 숫자나 양(量)보다는 내용이나 질(質)을 따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발표한 논문수가 적다고 해서 결정을 할 일은 아니다. 더구나 대학교수수가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와 학생지도도 같이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대학교가 주인으로 강의를 하고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발표한 논문수가 적은 게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대학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교수들이 진실하고 진지하게 연구하고 글이 아무리 읽힐수록 바쁘다 하더라도 교수 연구소를 소유하고 있다는 인연이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가르치는 곳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연구하는 교수라고 평가받을 때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입학관리과 '97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

농어촌학생 3% 확대 선발... 재외국민·외국인도 57명 모집해  
12월 26일 면접 실시... 원서교부, 서울·전주에서



(이번 97학년도 신입생은 총 2,880명을 모집한다. 올해는 특히 특별전형에 재외국민·외국인이 추가되었고 배점은 500점 만점에 작년과 비율은 동일하다.)

입학관리과에서는 9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지난 10월 8일에 발표했다. 이번 모집요강은 전형일정표, 모집학과 및 모집정원, 지원 및 지원방법, 전형방법, 취업자전형,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합격자 선발일정, 전형일정에 관한 사항, 입학관리과 직영요령, 유외사항, 학교안내문이 제시되어 있다.

3월원으로 올랐으며 전형료는 일반학과 3만원, 사범계학과 4만원, 예체능계·체육특기자는 8만원, 취업자·농어촌학생은 4만원으로 작년과 같다.

학교안내에는 우리대학의 연혁, 장학안내, 교육특성, 기숙사, 입시정보시스템 안내 등이 게재되어 있다. 특히 교육특성은 새로 추가된 사항으로 특수교육, 외국어 교육,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컴퓨터 교육, 고신반 운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편,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대학에서는 대학수학능력 영어영역 성적우수 신입생 20명에게는 해외연수장학금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신입생 모집요강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것으로는 면접고사를 오후로 나누어서 본다는 것과 특별전형에서 작년에는 농어촌학생을 총인원의 2%를 선발했으나 이번에는 3%로 늘려 선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이 특별전형에 재외국민, 외국인도 추가되었다. 또한 작년까지는 기복학과와 지리사 체제중점서를 첨가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특수중점사만 있으면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우리대학의 이번 모집요강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전형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매수도 작년에 비해 많이 늘어났으며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96학년도 우리대학 입학결과 등을 첨가하여 수험생들이 보기에 유익하도록 하였다.

## 마무리 전학대회 개최

총대예산·선거시행에 관한 논의

지난 4일 무산되었던 하반기 제2차 전체학생대표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지난 11일 3시에 음악감상실에서 있었다. 이번 전학대회 안건으로는 총대의원회 예산 1300만원 처리와 선거시행세칙,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학생회 후보자 학적제한 철폐에 대한 전학대회의 의정장리 순서로 이루어졌다.

총대예산 1300만원의 중앙운영위원회 7인 대표 감사위원 9명, 선거위원 21명에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 내지 장학금 지급으로 2학기 예산으로 80만원, 선거관리 예산으로 150만원 사용, 민주광장 정비 사업으로 200만원, 57개학과에 각 10만원씩 지급 하는 것으로 인준되었다. 또한 민주광장 정비사업은 지난 17일에 추경지급 구역을 쇄락학과와 생활로 설정하였고 18일에는 농구대를 설치하여 이번 주 중에 길거리 농구구장을 가질 예정이다.

선거시행세칙 인준은 선거위원회에 내용은 초안의 몇가지 변경 사항을 배고 인준을 마쳤다. 변경된사항은 합동투표가 3회에서 2회로 조정되었고 추가사항으로는 학생회비 미납자에 대해 투표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 18일에 선거시행세칙 34조 피선거권 내용의 3항에서 '1996학년도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 ('12학기 납부자')가 추가되었으나 지난 학생총회심사와 창립전학대회 속에서 개정된 학생회비 제111조 3항에 명시되어있는 '당해년도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를 한다면 2학기 부학생은 당기에 준한다.'를 확인하고 학생총회의 위상을 고려해 김대은 총학생회장은 추가 변경 부분에 대해 무효화를 선언하였다.

또한 학생회의 후보자 학적유지에 재단에 대한 전학대회 입장, 학생총회 심사도 철폐된 것을 변경할 수 없다고 정의를 하였다.

이번 하반기 마지막 전학대회는 72명중 51명이 참석하여 2/3중점수 차기로 결의되었다. 그러나 45분이나 늦게 시작되며 전학대회중 총대의원들이 대외장을 빠져나가 미처마치는 25여명이 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은 총학생회장은 "3.27 학생총회 심사로 전학대회가 건설되면서 과의장이 참석하는 학생회 회고와 의사결정기구로 자리잡았으나 올해 처음으로 대외관 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례화된 강령이 학생들을 길러주는 유익한 길잡이로 생각하며 앞으로 과학성과정들이 안전에 대한 입장, 생각 등을 발표하고 총회는 지원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학대회를 끝으로 올해 전학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다. (취재부)

## 앞서서 달리는 사람 쉽없이 달리는 사람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쟁시장에서의 내일은 끊임없는 인재양성과  
앞선 기술개발이 좌우합니다.

더 좋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 (주) 금강  
앞선 품질의 페인트, 수지, 실란트를 만드는 - 고려화학  
뛰어난 설계와 철저한 시공 - 금강종합건설

바로 이들이 도전의 현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쉽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 금강·고려

▲ 건축자재 금강 ▲ 고려화학 ▲ 금강종합건설

◇ 한국의 OECD 가입의 의의

# OECD 가입, 동전의 양면성 띠고있어

## 해외차입금리 하락·노사관계 개선·한국의 위상정립등에 도움줘

### 회원국 자격요건 제대로 갖추지 못해 피해볼 우려도 높아

#### 1. 서론

한국이 난항 끝에 드디어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는(이제는 그 의미가 퇴색되는 듯하다) OECD에 29번째 회원국으로 초청받아 가입하게 되었다. 한국의 OECD 가입은 한 정권 출범 초기인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동맹'이라는 말이 붙은 후, '동맹'의 의미로 인해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물론 가입시기와 조건에서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한국의 가입은 장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대세로 이해되고 있다. 정부가 OECD 가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가입의지를 표기해 청빙하고 나섰으며 협상과정에서 많은 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반면 서방 언론들은 51개의 유산정책을 들어오며 OECD에 한국의 실적을 실패했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가입은 결과적으로 한국과 OECD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OECD만 무엇이든 한국의 가입이 한국경제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 2. OECD란 무엇인가

OECD는 미국이 구상한 미산품 판매에 따라 1948년 결성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기반으로 1961년 9월에 결성된 경제협력기구이다. OECD는 자유시장경제, 인권존중을 중요시하며 회원국간의 정부차원의 정책조정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지원의 강화를 통해 세계경제 및 개발도상국의 건강한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정책협력기구이다. 따라서 OECD는 다른 국제기구와는 달리 강제성을 띠지 보다는 회원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운영되는 협력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OECD는 설립초기에는 유럽과 미국을 21개국으로 참여하였으나 1964년에 일본이 그리고 최근에는 멕시코(1994년), 체코(1995년), 그리고 1996년에 한국이 가입함으로써 29개 회원국으로 늘어났다. OECD 가입이 확정된 것은 29개의 회원국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후이다. OECD가 추구하는 가치의 이념을 공명적으로 추구하는 국가 중에서 초청을 받아 일정한 절차에 의해 가입이 결정된다.

#### 3. OECD가입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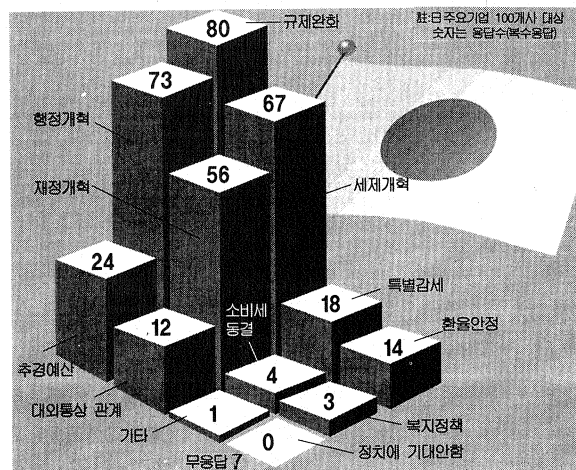
OECD 가입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일은 OECD가 추구하는 자유시장경제의 조성과 시장의 개방 그리고 각종 규범에 부합되도록 우리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각 부문에 존재하고 있는 자유경제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및 관행의 철폐를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얻는 것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 금융시장개방을 통한 자국의 자유로운 유출입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활성화 될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도가 높아져 기업의 해외차입금리가 0.05~0.1%포인트 가량 낮아진다.
- 환율요율방식 및 노사관계의 개선으로 삼의 질이 향상된다.
- 규제완화 및 OECD규범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으로 기업활동이 활성화된다.
- MAI(다자간 투자협정)를 국제경제질서 형성의 전제조건으로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세계경제 흐름에 우연의 의사를 넘어서고, 동시에 애초에 조정, 변경하는 등 국제투자에 대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다.

OECD 가입에 따른 장점을 열거하자면 한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은 거꾸로 이야기 하면 반대로 문제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먼저 금융시장의 개방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활성화는 외자유입으로 인한 통화외환의 증대, 물가불안을 야기시켜 수출감소와 무역수지적자를 초래할 수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확장은 약화시킬 수 있다. 멕시코가 OECD 가입과 함께 자본시장을 대폭 개방하면서 페소화가 폭락하고 증시가 혼란되는 사태를 맞은 전례를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발도상국의 원조유형인 공적개발원조(ODA) 부담도 지급받지(한



(한국의 GNP대비 해외직접 투자비중은 해외직접 투자비중은 0.7%, 소비자 물가상승률 4.5%로 OECD평균인 1.6%와 3.0%에 못 미치고 있고 노동생산도 8.3%/시간으로 선진국 평균인 28.5%에 크게 뒤져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해 예산의 약 1.8%에 해당하는 370억달러의 부담을 내야한다. 뿐만 아니라 의무사항은 아니나 OECD가 회원국들에게 권고하는 개발도상국의 원조유형인 공적개발원조(ODA) 부담도 지급받지(한

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OECD 가입에 우리가 해야할 과제 또한 OECD 가입과는 상반되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OECD 가입과 관련해

3%로 OECD평균인 1.6%, 3.0%에 못 미치고 있고 노동생산도 8.3%/시간, 해외직접투자 3.1%/100명당으로 선진국 평균인 28.5%, 46.3%에 크게 뒤져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 4. 결론

정부는 가입신청서 51개 사항에 대하여 유보를 용인함에 대한 협의가 85%로, 기존 OECD 회원국의 평균인 89%에 크게 미달된다. OECD 가입의 의의는 분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보면 일각의 한국은 OECD가입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 개방부담이 그만큼 크게 나타날 것이 확실하다. 정부와 언론은 한국의 OECD 가입은 개방 시대의 기쁨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만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연 한국은 그에 알맞는 뜻을 일고 있는가? 우리는 혹시 남들이 일컫는 화려한 옷 무늬에 눈이 멀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 흐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 클럽'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선진국 클럽에 들어간다는 것은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의 현실, 개발도상국에서 OECD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선진국의 수준에 사회 여러 부문에 활을 대야만 한다. 특히 교육의 경우 이제까지 말로만 부르짖던 '국제화·세계화가 하루 속히 실현될 거야' 하는 문젠데 대두 되고 있다. 외국어의 우수한 대학들이 국내에 분포를 설치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그때따라 우리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대학조차 쇠락할 위험이 우려가 될 때이다. 교육개혁안이 발표되었고 이중 일부의 개혁안들이 대학입시 과정 혁신 해소에 도움을 주겠지만 4년제 대학의 경쟁은 여전히 것이다. 결국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우수한 인재를 외국에 빼앗기게 되는 결과로 초래하게 될 것이다.

#### OECD 가입후 대학의 방향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급대학 대학의 크기를 키워서 안 된다. 대학 전체를 키워야 하는 어느 한 학과를 특성과 해서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을 들여보지 못한 외국은 학과들도 어느 한 학과를 특성하여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수준을 추구하는 학교들도 꽤나 있다. 대학교육의 질에 있어서도 기반을 튼튼히 해서 계속 성장하려면 한국의 대학합병설상은 절대로 OECD 수준은 패야 한다. 대학 스스로 외국어교육, 학생-교직원 국제교류, 외국인 교수 초빙, 외국 교과서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정보기술도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한다.

#### 대학만평



## 개발도상국으로서의 혜택 포기해야

### OECD 규범에 따라 제도 개선해야

기 위하여 정책금융의 지원 등으로 경쟁력의 저하성이 유발되어 왔기 때문에 외국의 금융시스템에 비해 경쟁력이 약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낮은 신용등급은 해외직접 투자에 대한 투자를 막아줄 수 있다. OECD 가입이 확정된 것은 29개의 회원국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후이다. OECD가 추구하는 가치의 이념을 공명적으로 추구하는 국가 중에서 초청을 받아 일정한 절차에 의해 가입이 결정된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점진적인 단계로 거치지 않고 OECD 가입을 계기로 시기적절하게 OECD 가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OECD 가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OECD 가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OECD 가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OECD 가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OECD 가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

노신은 말했습니다. 길이란 무엇인가?  
없던 것을 밟으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길이 아니란가?

누가 뭐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폐가 고쳐와 젊음, 당신이 가는 길.  
월간 『사회평론』 같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월간 『사회평론』 같은  
우리 시대 젊은 지성의 동반자입니다.

●리판대 rx1214  
●레이플 monthgil ●나누리 ychh

**발간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 주 1회 발행하며, 휴간일은 법정공휴일과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이다.

**발행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1 동원빌딩 11층 (주)사회평론

**대표이사** 김성환

**편집장** 김성환

**발행인** 김성환

**주최** (주)사회평론

**주관** (주)사회평론

**발행인** 김성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1 동원빌딩 11층

**전화** 02-377-3224

**팩스** 02-377-3225

**이메일** rx1214@naver.com

**홈페이지** www.sohae.com

**발간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 주 1회 발행하며, 휴간일은 법정공휴일과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이다.

**발행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1 동원빌딩 11층 (주)사회평론

**대표이사** 김성환

**편집장** 김성환

**발행인** 김성환

**주최** (주)사회평론

**주관** (주)사회평론

**발행인** 김성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1 동원빌딩 11층

**전화** 02-377-3224

**팩스** 02-377-3225

**이메일** rx1214@naver.com

**홈페이지** www.sohae.com

**발간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 주 1회 발행하며, 휴간일은 법정공휴일과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이다.

**발행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1 동원빌딩 11층 (주)사회평론

**대표이사** 김성환

**편집장** 김성환

**발행인** 김성환

**주최** (주)사회평론

**주관** (주)사회평론

**발행인** 김성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1 동원빌딩 11층

**전화** 02-377-3224

**팩스** 02-377-3225

**이메일** rx1214@naver.com

**홈페이지** www.sohae.com

**(주)사회평론**  
 대표이사 김성환  
 편집장 김성환  
 발행인 김성환  
 주주 김성환, 김성환, 김성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1 동원빌딩 11층  
 전화 02-377-3224  
 팩스 02-377-3225  
 이메일 rx1214@naver.com  
 홈페이지 www.sohae.com





# 호남의 금석

## <5> 잊혀진 약령시장과 서천교

호남의 금석문화를 살필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잊혀진 약령시(藥령市)와 서천교(西天橋)를 생각해 봐야 하는 비(碑)이다.

조선 후기인 조선 후기에 약령시 취급업자 특수업 시장의 한바탕을 알았다. 다 아는 것처럼 인간의 상행위와 경제활동은 시장(市場)을 무대로 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경제활동이 미숙한 시대에는 시장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전주에서 도시가 발전하고 시가지의 상업세력이 커져가면서 상행위가 완전히 시장에만 국한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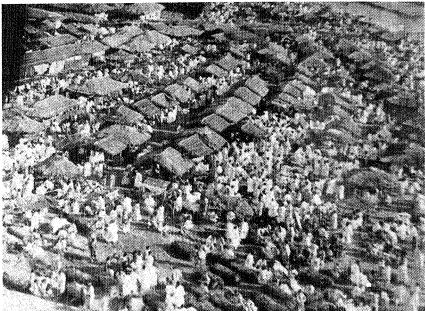
전주의 경우 동학운동 때 동학군의 전주입성이 있었던 1894년 무렵까지는 동서남북의 네 면 부에 모두 장이 5일마다 열렸다. 동문과 북문 부에 두 시장은 9일과 9일장이었고 서문과 남문의 두 시장은 2일과 7일장이었다. 그러나 동문과 북문의 두 장터는 점차 쇠락하여 폐장되고 남문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1923년에 서문 밖 시장을 흡수하여 남문시장 하나만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렇게 알려진 시장은 다시 거래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우시(魚市), 마시(馬

市) 1923년 한의약계 인사들이 모여 부흥을 기도한 결과 출시인(出市人)이 10여만 명에 이르고 거래액이 10여만원(圓)에 달하는 성황으로 한때는 대구의 약령시를 능가하기도 했다.

지금의 완산동, 완산교에 도심으로 가

데 힐서, 약령시를 완전하게 만들었다. 시중 힐서, 그러나 그대가 아니고 다시 누가 있었다는. 한 고을에 빛이 나고, 많은 이의 칭찬이 자자하다(송근이及人, 衆美忘自 自備善德, 善充市者, 政乃始終, 非公其能. 一州生彩, 兩口碑聲).



(전주 약령시는 지금의 다가동과 전주천사이의 약전골에서 일년에 두 번 춘시와 추시로 열렸다.)

# 조선후기 전주에 '약재시장' 번성 기록

## 서천교 돌다리형태 창건... 홍수로 유실 '중건 또 중건'

었다. 그러다가 1968년에 관에 의해 새롭게 중건되어 사용되다가 현재는 다시 시공 중에 있다. 서천교 창건(창)은 바로 서천교의 창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광(道光) 27년인 동종 13년(1847)에 세운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의 이름은 산(山)나라 때 비롯되었고 주(周)나라 때는 여러 곳에 나타나며 후세에 미쳐 다리의 편리함을 크고도 광범위하게 이르렀다. 일찍이 불나라, 중국 천수(泉守)의 안안(安安), 황안(黃安)의 이보(利步橋)는 매우 장관이라 하는데, 서석교(西石橋), 서천교의 원래 이름) 또한 그 훌륭함과 그 편리함을 칭찬해 주 있었는가. 전주로 발

인관 고을에 편유하여 세 3600 냥을 모아 모두 합하니 일만 육천 냥 남짓이다. 이를 통관(通判) 이의평(李義平)에게 주어 일을 맡겨서 황산(黃山) 돌을 다듬어다가 일진년(1832) 겨울에 착공하여 이듬해 4월에 준공하였다. 다리의 간수는 모두 열 아홉 칸이다. 전주천을 가로지른 다리는 견고하여 평지처럼 탄탄하고 물고기 비늘처럼 반듯하고 태산이 누르는 듯 우뚝 솟아 사람이서 비를드는 수레와 말구지, 그리고 필도의 길손들이 황폐하는 데 편리하게 그쳤다. 전주의 명물이 지난날보다 훨씬이나 볼품이나, 이는 장엄의 조영의 신물이 성립다. '나라는 이 세상에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것이다'는 옛

이를 기록하여 서천교의 원형 작은 빛에 이를 세기는 것이다. (橋之名, 始於周, 善於漢, 而遺後世, 其爲功則也, 既大且廣矣. 蓋聞泉石之黃安, 黃安之利步, 甚可壯也. 今於西石橋, 廉莊無其標其利之可稱者乎. 本州, 周之興, 漢之流, 而商之左, 一大雄都也. 川之廣, 有五流, 不能通漕, 障在炎亥, 巡相建公用龜, 別備五百四十餘丈, 以爲建橋之需, 而又於廿三 巡相建公用龜, 捐米糧一千二百四十餘石, 以備其物料. 至於王叔選相李公憲, 捐糧五百石, 且經把路中各機鈔米, 而籌款及列邑, 賜金二千六百餘金, 合爲一萬六千金. 與通李侯, 從容觀劃, 伏興石石.

# 헌종 때 창건... 전주천 남북간 연결 '매곡교'로 통칭 현재 새 다리 시공중

## 2천5백주민 도움 '전주명물' 기록

### 서천교 창건비

한편 주(周)나라의 창립자인 빈(燕) 왕이요, 한(漢)나라의 패왕(沛王)이요, 우리나라 큰 도시의 하나이다. 전주천 남북에 25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쉽게 전주천을 건너다닐 수가 없었다.

아/ 세 명의 관할사가 벼슬준 은태와 이회영의 관복에 대한 공로는 영민과 불우(不富)할 것이며 이 서천교와 함께 길이 남을 것이다. 그리고 다리의 건설에 참여한 여민 열사 후세에 빛날 것이다. 후세의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서 다리가 부서지는데 따라 다시 보수한다면 후인의 이름다운 공로 또한 예전에 비해 뒤지 않을 것이요, 이 다리의 편리함을 중국의 만안교, 이선교에 못지 않을 것이다. 내, 비록 문장에 능숙하지 못하지만 이 글 사자를 모두 알고 있기에 마땅히

工始於王叔選冬十月, 告成於明年四月. 橋之開築, 凡一十有九, 板敷盤結, 勢作坤維, 次若魚鱗, 量如岳嶽, 四方之輪蹄, 八城之行旅, 莫不便利, 而一州之勝狀, 有倍於曩昔, 此果造化之收也歟, 故所云橋爲天下雄勝者, 非亦耶. 噫, 三聖相繼起之澤, 李韓宣後之功, 永世不朽, 與此橋, 齒其壽, 而嚴其事諸人, 并垂而後, 後之人, 視此刻文, 隨後而治之, 則後人之美, 不後於前. 而此橋之利, 亦當在於萬安利勝之下也哉, 余雖不能於文字, 既其其法, 遂記之, 勒于橋左石. (문후부)

# 약령시 기념비

## 완산동 여관앞, 전주 창립 의의 담아 한때 대구약령시 능가 '문전성시' 이루기도 '박계조 기념비' 한뼘... 부흥 움직임

市), 약령시(藥令市), 어시(魚市), 소세시(蘇柴市) 따위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약령시는 약재를 취급하던 특수업 시장의 하나로, 부흥 대국의 약령시가 매우 유명했다. 대구의 약령시는 1658년(효종 9년) 경에 창설된 일의비(任義碑)이 최우량업의 약재를 조달할 방법을 공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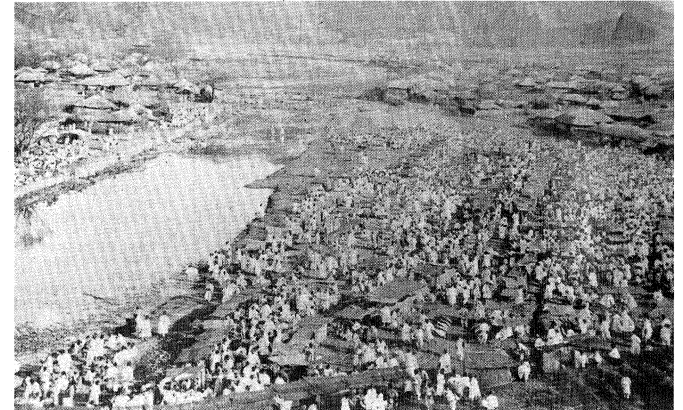
는 길 왼쪽에 있는 수도장 여관 건너편 변소문 안에 있는 전주약령시창립기념비(全州藥令市創立紀念碑)는 바로 이 때(대정 12년; 1923년)에 세운 것이다. 이 기념비는 높이가 132cm이고 폭이 47cm이며 두께가 20cm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새겨져 있다.

전주 약령시 흥무 전의관 박계조 기념비(全州藥令市 總務 前議官 朴啓造 紀念碑)가 세워지던 1922년 당시에는 약령시의 거래액이 60만원을 넘어선 정도도 성황을 이루었으나 1943년 광복으로 <성락통제령>에 의해서 약령시는 막을 내리고 말았으며 최근에 전주약령시를 다시 복구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중

다. 광복에 걸치던 당시(高市)를 반대 강도도 강령(高令)을 강사가 행정청을 앞장) 안에 있는 개사(高舍)에 열사(熱市)를 열었다. 이것이 대구 약령시의 출발로 이후에는 열사(高市)로 바뀌어서 1년에 두 번(봄과 가을)에 걸쳐 시장이 열렸다. 그 후 약령시는 시화·경계의 발전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되어 대구 이외에 원주, 전주, 광주, 전주, 정주, 대전, 개성, 제천에서도 열렸다.

삼천리 강토에 오직 한 곳이요, 조선조 5백년에 처음 있는 일, 때와는 달리 나무에까지 미치고, 만물은 피지와 물고기까지 갖추니, 종래의 옛 도읍지요, 새로운 약령시장 크게 영통하리(三千里一, 五百年初, 化被草木, 信及豚魚, 靈雨而, 泰通新市).

완산동 다리에서 도청 쪽으로 가는 대신 오른쪽으로 돌아 전주천을 끼고 걸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매곡교(梅谷橋)라 부르는 서천교 창건비(西川橋創建碑)를 찾을 수 있다. 전주천은 전주시를 중심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남동쪽 노령산맥의 분수계인 일삼근 관천역 습지(濕地)에서 발원하여 전주 시가지의 중심을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감아들이며 서진동 쪽에서 산천교로 합류한다. 전주천은 옛부터 전주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며, 목욕터 따위로 이용되었다. 또 하천의 제방을 따라 천변로(天邊路)가 설치되어 산책로로 애용되는데, 서변을 따라 남천교·완산교·다가교·서천교·진북교를 비롯해 많은 다리가 있어 등산객과 낚시객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다리를 가운데 서천교는 1847년에 돌다리 형태로 창건되었으나 1920년 홍수로 유실되



(서천교는 1847년 돌다리 형태로 창건되었으나 1920년에 홍수로 유실되었다. 1968년에 중건되어 사용되다가 현재 새 다리를 시공 중에 있다.)

중외제약

"SPC를 쓰고부터는 눈이 참 편안해졌어요" **김현수**

"렌즈관리가 두배로 빨라졌습니다." **노훈**

### 렌즈관리 정말 편하죠, 눈도 편안해요-SPC

"SPC 편이요 세척과 단백질제거가 동시에 되거든요" **이지현**

"눈이 예뻐다는 말 자주 들어요. 비결은 바로 SPC죠" **조문숙**

# SPC

●수입원재료 ●권장소비자 가격 ₩ 5,500 2개월분

중외제약 음성정보시스템

문의: 렌즈관리 전문점 운영 중외제약에서는 렌즈관리 부주의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해소코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4시, 점심 12시~2시. 서울: 528-4806-8 ● 전주: 254-3038, 77-0209 ● 대전: 621-5981-3 ● 청주: 57-1751-2 ● 원주: 42-0401 ● 제주: 47-5914



